

차별지각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여성의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효과

김 금 미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한 영 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에 근거를 두고 여성과 남성의 차별지각과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 동등추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 집단몰입요인이 남녀 동등추구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지각에 의해 조절되고 집단별주화 요인은 차별지각을 매개하여 남녀 동등추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여성 399명, 남성 368명을 대상으로 성별사회정체성, 차별지각, 남녀동등추구를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1) 여성의 집단몰입이 낮을수록 차별지각에 따른 차이가 커지고, 집단몰입과 차별지각이 모두 낮을수록 다른 조건들에 비교하여 남녀동등추구가 낮아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2) 여성의 집단별주화요인이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차별지각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앞으로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사회정체성이론, 성별사회정체성, 차별지각, 남녀평등, 남녀동등, 남녀동등추구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관련한 차별의 지각이 여성과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른 남녀동등추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즉 차별지각과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라 어떤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이 남녀 동등¹⁾을 더 주장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차별지각

차별이란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태도를 일컫는 편견의 행동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숙, 1999). 예를 들어 투표를 할 때나 승진심사와 같은 상황에서 집단 명칭에 근거해 불이익을 주는 행동들을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간의 관계에 관련하여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믿는다(Crosby, 1982). 그러나 집단이 차별받는다는 신념에 있어서는 그 사회정체성을 공유한 사람들간에 차이가 있다(Crocker & Quinn, 2001). 예를 들어 Taylor, Wright, 및 Porter(1994)의 연구에서 대학생이 아닌 여자들보다 여자대학생들이, 여성이 더 차별의 표적이 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같은 여성이라도 차별에 대한 지각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남녀동등추구에 차이가 있겠으나, 지각된 차별과 반응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다(Kaplan & Sedney, 1980).

또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차별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더 차별된다고 믿는다(Taylor et al., 1994). 즉 여성은, 여성 자신에 대해 질문할 때보다 전체 여성들에 대해 질문할 때 차별 현상에 더 동의한다. 이러한 현상을 개인/집단 차별 상위(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Taylor et al., 1994)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차별의 부정"(Crosby, 1984, 재인용)이 차별된 집단 성원에게 항상 일어나지는 않는다(Taylor et al., 1994). 예를 들어 Crocker, Luhtanen, Blaine 및 Broadnax(1994, 재인용)는 백인과 흑인에게 차별과 편견에 대한 집합적 표상과 자존심을 알아보았는데 흑인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보다, 개인적으로 차별되었다고 더 믿었다. 즉 백인 학생들과 흑인 학생들은 흑인 전체에 대해 이해가 달랐는데, 흑인 학생들은 흑인 사회가 편견과 차별에 의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더 믿는, 소위 체제 비난(system blame)을 더 했다(Crocker & Quinn, 2001). 그러므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집단 내에서도 차별 지각 정도가 다르고 이러한 차별지각에 따라 집단간 동등추구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타인과 비교하여 개인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이기적 박탈(egoistical deprivation)과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자기 집단이 전체로 박탈되어 있다는 지각인 집단 우애적 박탈(fraternal deprivation)(Runciman, 1966, 재인용; 한덕용, 1995)이 구분되는 점을 볼 때, 개인적 차별지각과 집단에 근거를 둔 차별지각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차별지각과 관련하여 상대적 박탈이론과 사회정체성 이론을 결합한 모델(Mummendey, Kessler, Klink, & Mielke, 1999)에서는 준거결과, 안정성-개선가능성-합법성-도구성, 침투가능성을 선행변인으로 하여 정체성과 집단우애적 분노(fraternal resentment)와 집단 효능성을 매개한 전략의 수행을 예측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남성집단이나 여성집단에 동일시하는 정도가 다르고 개인적 차별이 실제 행동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 근거를 둔 차별 지각보다 우선 개인적 차별 지각을 측정하고, 사회정체성의 요인에 따른 집

1) 본 연구에서 '남녀동등'의 의미는 성차별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남녀평등'의 의미와 일관된다.

단간 동등추구에 이러한 개인적 차별지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동등추구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회정체성을 통해 자존심을 지니게 되므로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내집단 편애를 보인다고 주장한다(Tajfel & Turner, 1986). 사회정체성이론이 제안된 이후 이 이론을 남녀 집단간 관계에 적용하거나(Hogg & Abrams, 1990) 혹은 적용을 시 사한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Ashmore, Del Boca, & Wohlens, 1986). 또한 최근에도 상대적인 집단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서적 반응, 지각, 및 행동이 달리 나타난다는 주장이 개관된 바 있다(Ellemers & Barreto, 2001). 집단간 지위는 성별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집단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더 낮다고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금미(2001)는 남녀간의 상대적인 지위지각을 질문한 결과에서 남자는 3.85점, 여자는 1.87점(0~6의 7점 척도)으로 남자가 자신의 지위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Ellemers와 Barreto(2001)는 집단의 지위에 따른 행동 가운데에도 보상할당에서의 내집단 편하, 자기와 집단의 향상을 위한 시도 등을 주장하였다.

Ellemers와 Barreto(2001)가 제안한 자기와 집단의 향상을 위한 시도는 Tajfel(1978, 93~94쪽; Ellemers, 1993에서 재인용)이 제안한 전략들과도 관련된다. Tajfel은 낮은 지위의 집단이거나 소수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동이 가능할 때는 다른 집단으로 소속을 변경시키는 사회적 이동을 하지만, 이동이 불가능하면 다른 3가지 전략을 사용한다고 제안했다(Tajfel, 1978, 93~94쪽; Ellemers, 1993에서 재인용). 내집단이 우월한 집단이 되도록

경쟁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거나, 현재 집단의 열등한 특성을 재해석하여 열등하게 보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사회적 행동과 새로운 '이데올로기' 분화를 통해 정적으로 가치있는 독특성을 지닌 새로운 집단 특성을 창조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내집단이 비교되는 외집단을 선택하거나 변경하여 정적 독특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전략을 통털어 '사회적 창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Ellemers, 1993).

이후 Blanz, Mummendey, Mieke, 및 Klink(1998)는 사회정체성이론과 사회비교이론으로부터 이러한 정적 사회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12가지의 정체성 관리전략을 선정하여 정체성 관리전략의 이론적 체계를 제안하고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개인적 이익과 집단목표가 외집단과 갈등할 때 내집단에 이롭도록 자원을 할당하려는 목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인 실제적 경쟁은 남녀 차별에 관련된 집단 행동 전략에 관련되므로 실제 남녀 차별과 관련한 종속측정치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적으로 유지 혹은 향상시킨다고 가정하는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실제적 경쟁을 포함하는 부적 사회정체성 관리전략은 사회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llemers, Spears, 및 Doosje(1997)는 집단 몰입과 개인적 이동의 심리적인 결정요인으로서 내집단범주화 요인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사회정체성이 낮을 때에 비해서 집단에 더 정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적 사회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간 동등추구와 같은 집합적 경쟁전략을 더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 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해 남녀 동등을 더 추구할 것이다.

중다차원의 성별사회정체성

그런데 사회정체성에 관련한 연구의 틀에서, 사회정체성이 중다차원의 구성체제라는 다차원적 개념이 강조된 바 있다(Hinkle, Taylor, Fox-Cardamone, & Cook, 1989). Tajfel(1978; Hinkle et al., 1989에서 재인용)은 사회정체성을 '집단의 멤버십에 대한 지식과 그 멤버십의 가치 및 정서적 중요성에서 나오는 개인적 자기개념의 일부'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Hinkle 등(1989)은 사회정체성의 인지적 측면(지식), 평가적 측면(가치), 정서적 측면(정서)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김금미·한덕용, 2001)에서 이미 여성을 대상으로 성별사회정체성의 세 요인 구조를 얻은 바 있다.

Ellemers, Kortekaas, 및 Ouwerkerk(1999)는 내집단 지위와 집단 크기 및 집단 형성(자기 선택/할당)의 세 변인을 조작한 실험연구에서 사회정체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Tajfel의 평가적(집단자존심), 인지적(자기범주화), 정서적(집단몰입) 구분과 일관되는 집단자존심, 자기범주화, 그리고 집단몰입의 세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이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65%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Ellemers 등(1999)은 사회정체성의 세 요인들 가운데에도 평가적·인지적 요인이 아닌 정서적 요인이 내집단 편애의 선행요인이라고 가정했다. 왜냐하면 정체성 위협에 대해 개인 수준의 반응(예. 집단과 자신의 거리두기)과 집단수준의 반응(예. 내집단 편애보이기) 선택의 주요 결정요인은 정서적인 요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낮은 집단 지위로 인해 사회정체성의 평가적인 요인이 부적인 결과를 얻을 때에도 정서적인 몰입(정서적인 요인)의 수준이 변하지 않고 높게 유지된다면, 내집단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집단적 시도를 하리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Ellemers 등(1999)은 매개분석을 위해 내외집단 평

가의 차이 점수와 집단별로 할당한 점수를 각각 사용하여 공변인분석을 했는데 사회정체성의 세 요인 중 집단몰입을 넣었을 때만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차별지각과의 관계를 탐색하지는 않았으며, 더 나아가 남녀동등추구와 성별사회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정체성의 개별적인 요인들과 남녀동등추구의 관계를 구별하여 살펴보고,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성별사회정체성의 영향을 탐색하며, 이 가운데에도 정서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집단 몰입과 행동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체성의 각 요인과 개인적 차별지각이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예측할 필요가 있다.

성별사회정체성, 차별지각 및 남녀동등추구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 정서적 요인에 해당하는 집단몰입은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내집단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내집단 편애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Ellemers et al., 1999). 즉 남녀집단간 관계에서 여성의 경우에 집단의 지위가 낮아서 부적인 결과를 얻더라도, 정서적 몰입이 높다면 내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내집단 편애가 나타난다. 그런데 집단몰입이 높을 때 항상 차별을 낮게 지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별지각이 조절변인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 몰입이 낮아서 자신이 여성이라는데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면서 동시에 차별을 지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는 남녀동등을 추구하는 집합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몰입이 높아지거나 차별지각이 높아질수록 내집단을 통한 자존심추구동기가 높아져서 남녀동등추구 행동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체성과 차별지각

이 모두 낮은 경우에 남녀동등추구 경향이 낮으리라고 예측된다.

한편 집단범주화와 차별지각의 관계에서, 자신을 여자로 범주화하여 범주인식이 강화되면 자신이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이 더 감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별사회정체성 요인 가운데, Tajfel과 Turner(1986)에 따라 인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집단범주화’에 대해서는, 이 요인이 차별지각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매개분석하여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인지적, 감정적, 이기적, 집단우애적 박탈이 인종 내집단 동일시를 예언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 Perla와 Walker(1992,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집단우애적 상대적 박탈이 인종 정체성을 예언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바 있다(한덕웅, 1995). 이 연구에 따라 차별지각을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정체성의 요인별로 나누어 볼 때 집단범주화의 경우에 만약 차별지각이 선행된다면, 차별지각이 높아짐에 따라 집단범주화가 낮아지고, 또한 이때 집합적 행동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이상 부적 정체성의 원인이 되는 집단의 성원으로 정의하지 않고 집단평가에서 영향받지 않는 독특한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인화’를 할 수 있다. 혹은 외집단에 소속하려 하는 개인적 이동’을 시도하거나 혹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외집단에 유사해지려는 ‘동화’를 전략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나 노력에 의해 집단 소속의 변경이 가능한 집단간 관계와는 달리, 성별은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변경불가능한, 즉 개인적 이동이 불가능한 집단의 범주화에 대한 인식이 선행하고 그에 따라 차별지각과 집단적 동등추구행동이 높아진다는 가정이 보다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집단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집단범주화가

개인적 차별지각을 매개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가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 평가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집단자존심요인의 경우에는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정체성이론에 근거하면,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지니고 있을 때 내집단 편애적인 분배를 할 것이다. 즉 자신이 여자라는데 대해 긍지를 느낄수록 차별지각을 더 하고, 남녀동등을 더 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집단몰입과 달리 집단자존심은, 이전에 차별을 덜 받은 경우에 지닐 수 있는 독특한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차별지각을 덜 느낀 결과로 집단자존심이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 남녀동등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정체성의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가설을 설정할 때에는 다르게, 차별지각과 평가적인 요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명확한 이론적인 근거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탐색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성별사회정체성 요인들과 개인적 차별지각에 따라 어떤 조건에서 남녀동등행동을 추구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에 관련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남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자

질문지 응답자는 763명의 대학생들(여성 395명, 남성 36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의 순으로 각 357명,

72명, 165명, 73명, 71명 25명이었다. 주로 심리학 개론 수준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었다.

질문지 문항구성

성별사회정체성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정체성 및 이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한 국내의 연구들에 포함되었던 문항들을 수집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집단심리를 전공한 박사 과정 수료 이상의 3인이 이 문항들에 대해 성별 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정도를 평정하고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총 47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문항들은 '나는 내 자신이 여성(남성)답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화가 난다', '나는 여성(남성)들을 남성(여성)들보다 쉽게 믿는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 가운데 긍정적 문항은 36문항이었고, 부정적 문항은 11문항이었으며,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에게 각 문항들에 대해 '자신의 성별에 대하여 느끼거나 행동하는 바'를 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차별지각

차별지각에 관련한 5문항은 김혜숙(1994)의 연구에서 인용하였다. 문항은 '당신은 자신이 여(남)성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자주 피해나 손해를 입었다고 느끼십니까', '~얼마나 심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여(남)성으로써 당신은 남(여)성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자주 차별당한다고 느끼십니까', '여(남)성으로써 당신은 남(여)성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심하게 차별당한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여(남)성으로써 당신은 남(여)성들과

비교하여 차별을 경험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으십니까'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문항에 대해 0점(거의 느낀 적이 없다, 거의 느끼지 않았다) ~6점(매우 자주 느꼈다, 매우 심하게 느꼈다)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남녀동등추구

집단간 동등추구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의 남녀 비율이 전체 남녀 성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취업기회를 누리도록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남녀 평등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부의 신설은 바람직하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취업기회를 위해서 공무원 여성 할당제는 강화되어야 한다'에 대하여는 '-3점(매우 반대한다)' ~ '3점(매우 찬성한다)'의 7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 대졸자의 초임이 동등해지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업체에게 촉구하는 대회가 있다면 참여하겠다', '나는 기업에서 같은 경력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주장하는 편이다'에 대하여는 '0점(전혀 그렇지 않다)' ~ '6점(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 방법

성별사회정체성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분된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고 선정된 문항을 기초로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데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선정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표집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구성개념의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성별사회정체성 차별지각 및 집

단간 동등추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은 SAS windows용 6.12를 이용하고, 성별사회정체성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 windows용 8.03판을 이용하였다.

결 과

성별사회정체성, 차별 지각 및 집단간 동등추구

먼저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분 자료에 대하여 전체 방향과 역방향인 문항을 역전한 후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 모형이었고, 기초 구조의 추출 방법은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시초값은 중다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로 추정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교회전(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구조를 회전하였다. 기초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스크리 검사, 고유치, 누적분산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중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이나 두 요인 이상에 부하된 문항을 제외하고, 해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총 21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85%를 설명한다. 각 요인의 고유치와 신뢰도 계수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제 1요인의 문항들은 전체적으로 내집단에 대한 긍지, 내집단에 대한 의미 부여, 중요성 지각 등의 집단소속에 관련된 정적인 가치 평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집단지존심'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82였다. 자기가 남성이거나 여성다운 정도, 성별이 자신을 반영하는 정도 및 성별의 중요성 등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정체성의 인지적 요소에 포함되었

던 문항들이다. 따라서 이 결과에서 성별에 관련한 자기 인식의 측면이 우리 문화에서는 성별 집단에 대한 자존심 차원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성별사회정체성의 독특한 측면으로 생각된다.

제 2요인은 대체로 내집단의 성원이라는 데 대한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고, 집단에 대한 부적 의미 부여를 질문한 문항도 이 요인에 속하였다. 따라서 Ellemers 등(1999)과 일관되게 '집단몰입'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다. 이 요인은 역전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집단몰입이 높을수록 전체 사회정체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 3요인은 외집단 성원들에 비하여 내집단 성원들을 쉽게 믿음, 내집단의 성원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음, 내집단(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애착 등의 집단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를 나타낸다. 따라서 '집단범주화'로 명명하였고, Ellemers 등(1999)의 자기범주화 요인과 내용이 일관된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는 .79였다. Ellemers 등(1999)의 연구 결과에서 정서적 몰입감에 속했던 문항 중 '나는 내집단의 성원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다'는 문항이 오히려 '집단범주화' 요인에 속해있다.

또한 성별사회정체성척도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알아본 대로 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 선정 과정에서 선택된 총 21문항에 대하여 교차타당화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량행렬 자료로 GL(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을 이용하여 가설 모형을 검증하였다. 대표적인 부합도 지수들 가운데 NNFI는 .95, CFI는 .96, GFI는 .88, AGFI는 .88로 .90을 넘거나 .90에 가까웠고, RMSEA가 .06으로 대체로 적절하였다. 이 결과들은 각 요인이 7문항으로 이루어진 사회정체성척도의 세 차원

표 1. 성별사회정체성 요인의 요인부하량 및 신뢰도계수

문항	요인부하량	공통분	총집 문항 상관	자기문항 제거시 α 계수
v17 나는 내 자신이 여성(남성)답다고 생각한다	0.674	0.456	0.568	0.805
v15 나는 내 자신이 여성(남성)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0.671	0.552	0.651	0.791
v18 내가 여성(남성)이라는 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반영해 준다	0.640	0.445	0.566	0.805
v9 나는 내가 여성(남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삶의 의미를 더 느끼게 된다	0.613	0.432	0.626	0.791
v1 나는 내 자신이 여성(남성)임을 스스로 내세운다	0.594	0.391	0.487	0.795
v6 내가 여성(남성)이라는 사실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0.573	0.365	0.541	0.809
v19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성(남성)으로 태어나고 싶다	0.532	0.384	0.570	0.805
고유치			3.135	α계수 0.824
v26 나는 내 자신이 여성(남성)이라는 사실에 화가 난다	0.752	0.621	0.679	0.760
v30 나는 내 자신이 여성(남성)이라는 사실이 싫다	0.706	0.622	0.645	0.766
v14 나는 내 자신이 여성(남성)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0.668	0.454	0.620	0.772
v23 내가 여성(남성)이 아니었다면 행복했을 것이다	0.653	0.499	0.611	0.771
v43 나는 종종 나 자신이 여성(남성)들 중에서 쓸모없는 구성원이라고 느껴진다	0.588	0.352	0.452	0.800
v32 나는 다른 여성(남성)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0.525	0.282	0.432	0.804
v34 나는 여성(남성)이 남성에 비해서 가치가 높지 못하다고 느낀다	0.406	0.194	0.389	0.811
고유치			2.950	α계수 0.808
v38 나는 여성(남성)들을 남성(여성)들보다 쉽게 믿는다	0.634	0.406	0.551	0.761
v39 나는 남성(여성)들보다 여성(남성)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다	0.625	0.404	0.675	0.737
v44 나는 남성(여성)들보다 여성(남성)들에 대한 애착이 더 크다	0.565	0.331	0.612	0.749
v27 나는 다른 여성(남성)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0.556	0.385	0.417	0.786
v36 나는 다른 여성(남성)들과 연대감을 지니고 있다	0.525	0.377	0.459	0.778
v37 나와 절친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남성)들이다	0.502	0.266	0.417	0.786
v46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여성(남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	0.499	0.289	0.530	0.765
고유치			2.431	α계수 0.789

모형을 자료가 잘 반영해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차별지각과 집단간 동등추구를 각각 주성분 분석한 결과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이 각각 한 개씩이었고 고유치는 각각 3.94, 2.23이었다. 한 요인으로 보았을 때 모든 문항에 요인부하량이 높아서 일요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각각 .95, .77이었다. 남녀별로 각 요

인들 간의 상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남성과 여성 집단을 비교해보면 성별사회정체성 세 요인간의 상관 형태는 일관된다. 즉 집단 범주화가 높을수록 집단자존심이 높고, 집단 자존심이 높을수록 집단몰입도 높다. 또한 집단자존심과 집단몰입이 각각 높을수록 차별지각은 낮다는 점도 일관된다. 그러나 집단범주화 요인은

표 2. 차별지각, 성별사회정체성, 및 남녀동등추구의 상호상관

	(a)	(b)	(c)	(d)	(e)
집단범주화 (a)		0.487***	0.067	-0.035	-0.192***
집단지존심 (b)	0.104*		0.319***	-0.157**	-0.151**
집단몰입 (c)	0.022	0.271***		-0.296***	-0.094
차별지각 (d)	0.132**	-0.161**	-0.312***		-0.037
남녀동등추구 (e)	0.278***	-0.021	0.127*	0.176***	

*** $p < .001$, ** $p < .01$, * $p < .05$, \ 아래 여성, 위 남성

남성의 경우에는 차별지각과 관련이 없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을 여성으로 범주화할수록 차별을 더 높게 지각했다. 남녀동등추구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에 전혀 다른 상관 패턴을 보였다. 즉, 남성은 집단범주화와 집단존심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동등추구점수가 낮았다. 한편 집단몰입도와 차별지각은 남녀동등추구와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집단범주화, 집단몰입, 차별지각 점수가 각각 높을수록 남녀동등을 더 추구하였다.

성별사회정체성의 각 요인과 차별지각 및 남녀동등추구 요인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여성보다 남성이 집단존심이 높았고, $F(1, 762)=13.70$, $p=.0002$, 여성이 남성보다 개인적 차별지각을 더 했으며, $F(1, 762)=112.78$, $p=.0001$, 여성이 남성보

다 더 남녀동등을 추구하였다, $F(1, 762)=260.21$, $p=.0001$. 이 때 남성보다 여성이 더 차별을 지각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모두 차별지각 점수가 평균 3점보다 낮아서 대학생의 경우 여학생이더라도 지각된 개인적 차별이 그리 심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동등추구의 경우 남성의 점수가 낮지만 평균 3점보다 매우 높은 점수로써 사회적바람직성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차이가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 집단범주화와 집단몰입요인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사회정체성과 차별지각이 집단간 동등행동추구에 미치는 영향

여성에 대하여 성별사회정체성의 세 요인 가운

표 3. 차별지각, 성별사회정체성, 및 남녀동등추구의 평균(표준편차)과 변량분석

	여성	남성	F값
집단범주화	3.29(0.72)	3.28(0.76)	0.05
집단지존심	3.04(0.86)	3.29(0.99)	13.70***
집단몰입	4.77(0.79)	4.82(0.79)	0.76
차별지각	2.67(1.29)	1.73(1.15)	260.21***
남녀동등추구	5.16(0.73)	4.21(0.88)	112.78***

*** $p < .001$, 0-6점의 7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을 더 지님

데 집단몰입과 차별지각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주장한 조절효과 검증방식을 따랐다. 즉 남녀동등추구에 대하여 집단몰입과 차별지각의 상호작용이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시중다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차별지각은 집단몰입이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beta = -.77, p = .0086$). 조절효과를 더욱 명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몰입과 차별지각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집단몰입 점수에 따라 3등분하여 차별지각에 따른 집단몰입의 평균을 구하였다. 그 결과 집단몰입이 높을 때는 차별 지각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몰입이 중간이거나 낮을 때는 차별지각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여, 집단몰입이 낮고 차별지각이 낮을 때 남녀동등추구도 비교적 낮아졌다.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한편 여성에 대하여 집단범주화에 관련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따라 4단계의 과정을 살펴 보았다. 즉, 완전매개를 위해서는 먼저 집단범주

화를 차별지각에 회귀시켰을 때 집단범주화가 차별지각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차별지각이 남녀동등추구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집단범주화가 남녀동등추구의 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며, 또한 처음 두 경로를 통제했을 때, 집단범주화와 남녀동등추구 간에 유의했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되거나 유의하게 감소되어야 한다. 즉 집단범주화와 차별지각을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차별지각이 집단범주화의 효과보다 훨씬 더 많이 내집단 분배를 설명해야한다(Dovidio, Gaertner, & Valizic, 1998).

이 때 마지막 조건과 관련하여 경로가 완전히 유의하지 않을 때, 즉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의해서만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때 '완전매개 모형'이라고 한다(James & Brett, 1984). 그런데 심리학 영역이 여러 원인을 지닌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매개변인보다는 경로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매개변인을 찾는 데 더 실제적인 목표를 둘 수 있다(Baron & Kenny, 1986). 이에 관련하여 James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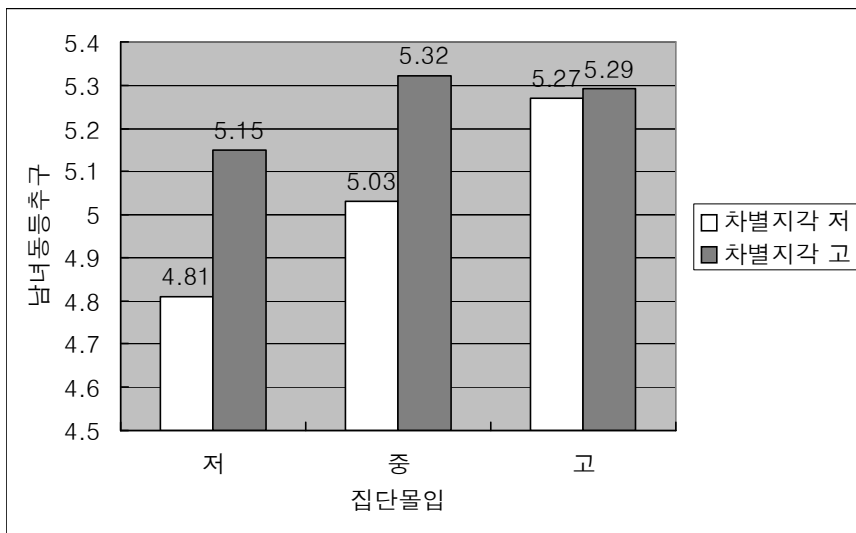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몰입과 남녀동등추구의 관계에 미치는 차별지각의 조절효과

Brett(1984)는 선행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인이 후행변인에, 그리고 선행변인이 후행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 '부분 매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때 선행변인이 후행변인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게 되고, 선행변인이 후행변인에 미치는 전체 효과의 일부가 매개변인에 의해 매개됨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집단범주화가 차별지각을 매개하여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집단범주화가 높을수록 차별지각이 높아지고 ($\beta = .13, p < .0082$), 집단간 동등추구도 높아졌다($\beta = .28, p < .0001$). 또한 차별지각이 높아질수록 남녀동등추구도 높아졌다($\beta = .18, p < .0004$). 이 때 처음 두 경로를 통제하고 집단범주화와 집단간 동등성추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유의하였으나($\beta = .26, p < .0001$), R^2 값을 이용한 유의성 검증 결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Delta R^2 = .01, p < .05$). 그러므로 Baron과 Kenny(1986) 및 James와 Brett(1984)의 정의에 따라 집단범주화와 남녀동등추구는 부분 매개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집단범주화는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영향에 직접효과와 차별지각을 경유한 간접효과가 있으므로, 집단범주화가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효과 전체 가운데 일부는 차별지각에 의해 매개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집단자존심과 관련하여 차별지각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29, n.s.$).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집단자존심이 높을수록 차별지각이 낮아졌으나($\beta = -.16, p < .0013$), 남녀동등추구는 관련되지 않았다($\beta = -.02, n.s.$). 그러므로 집단자존심이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별지각의 매개효과도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남성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을 해본 결과

의미있는 결과는 미미했다. 즉, 남성의 집단몰입이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차별지각이 조절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29, n.s.$). 또한 남성의 집단범주화와 차별지각은 관련이 없었지만($\beta = -.03, n.s.$), 집단범주화가 높을수록 남녀동등추구는 낮아졌다($\beta = -.19, p < .0002$). 또한 차별지각과 남녀동등추구는 관계가 없었다($\beta = -.04, n.s.$). 그러므로 남성에 대하여 집단범주화와 남녀동등추구에서 차별지각의 매개효과나 집단몰입에 대한 차별지각의 조절효과는 기각되었다.

논 의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차별지각에 따른 남녀동등추구의 관계를, 성별사회정체성 가운데 집단 몰입은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 집단범주화는 부분매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에게 남녀동등을 더 추구하게 하려면 집단몰입과 차별지각이 모두 낮은 사람들을 찾아 집단몰입이나 차별지각을 높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분매개효과를 고려할 때 일단 집단범주화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남녀평등정책들 가운데 여성들에게 성별범주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여성주의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차별지각이 높아질 수 있고, 집단몰입이 높아질 경우에 남녀동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녀동등추구가 낮을 때에도 평균 4점을 상회하는 점수였으므로 차별지각이 낮고 집단몰입이 낮을수록, 두 점수가 높을 때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남녀동등추구의 강도가 낮아짐을 뜻한다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남성의 집단범주화와 남녀동등추구의 매개효과는 없었지만, 집단범주화와 집단자존심이 낮을수록 남녀동등추구가 높아지는 점이 주목된다. 남성의 집단범주화와 남녀동등추구의 매개효과가 안 나온 결과는 남녀동등추구가 남성과 여성 집단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는 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에게 의미하는 바와 달리, 남성에게 남녀동등추구는 사회적 당위이면서 동시에 내집단의 이익에 저해되는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집단의 정체성에 따라 일방향적으로 변화를 보이기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러나 집단범주화와 집단자존심이 낮을수록 남녀동등추구가 높은 점에 초점을 두어 남성의 남녀동등추구를 위해 남성을 상위범주화를 시키거나 교차범주화를 시켜서 집단범주화와 집단자존심에 변화를 주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성별사회정체성과 차별지각의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가 주로 여성에게 지지되어서 남녀동등추구에 관련하여 여성이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성이 남녀동등추구를 더 해야 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 중의 하나로, 남성에게 ‘남성집단’의 의미는 여성에게 ‘여성집단’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성은 자신의 성에 대하여 여성에 비해 더 이익을 가져오는 기회가 아닌, 당연히 주어졌고 주어져야 했을 당위로서 별다른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정체성이 강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에 관하여 세밀한 탐색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가 김금미와 한덕웅(2001)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별사회정체성을 연구한 결과와 일관되는 점으로 보아, 여성과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 요인의 구조는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사회정체성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요인과 행동의 두드러진 관계를 주장(Ellemers et al., 1999)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성별사회정체성 각 요인의 차별적인 관계 양상을 검증하였다는데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계가 성별관계, 특히 여성들에서만 독특한 결과인지 다른 자료에서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회정체성, 예를 들어 지역이나 개별 집단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남녀동등추구 문항들은, Swim, Aikin, Hall, 및 Hunter(1995)가 주장하여 온 바에 따르면, 구식의 성차별주의(old-fashioned sexism)에서 측정했던 전통적인 성역할 시인 성에 따른 차별, 여성의 열등성에 대한 고정관념보다는, 현대적인 성차별주의(modern sexism)에 해당하는 계속된 차별의 부정, 여성의 요구에 대한 거부,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 결여에 더 관련된다. 성별에 관련한 문항의 의미로 볼 때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방향을 지닐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학문적인 의미와 더불어 ‘남녀 평등’ 정책과 같은 실제 적용에 관련하여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사회정체성요인 가운데 집단자존심의 남녀동등추구와의 관계 및 이 관계에 미치는 차별지각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정체성이론에서 내집단 편애의 이유를 자존심 향상으로 가정하는 면에서 보면 조화롭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추후에 더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집단자존심에 초점을 두어 집단자존심을 측정하는 검사(Luhtanen & Crocker, 1992; 김혜숙 1994)를 성별관계에 적용하는 연구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금미 (2001). 집단의 사회정체성과 지위에 따른 내집단편애-성별집단과 최소집단에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 김금미, 한덕웅 (2001).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5-38.
- 김혜숙 (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1), 103-116.
-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1), 1-33.
- 한덕웅 (1995).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II): 집단간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39-84.
- Ashmore, R. D., Del Boca, F. K., & Wohlrs, A. J. (1986). Gender stereotypes. In R. D. Ashmore & F. K. Del Boca(Eds.), *The Social Psychology of Female-male Relations*. Orlando, FL: Academic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anz, M., Mummendey, A., Mielke, R., & Klink, A. (1998). Responding to negative social identity: A taxonomy of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697-729.
- Crocker, J., & Quinn, D. M. (2001).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devalued identities. In R. Brown, & S. L. Gaertner(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ergroup Processes*(pp. 238-260). Blackwell Publishers Inc.
- Crosby, F. (1982). *Relative deprivation and working wom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e.
- Ellemers, N. (1993). The influence of socio-structural variables on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In W. St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4, pp. 27-57). Chichester: Wiley.
- Ellemers, N., & Barreto, M. (2001). The impact of relative group status: Affective, perceptual and behavioral consequences. In R. Brown, & S. L. Gaertner(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ergroup Processes*(pp. 324-343). Blackwell Publishers Inc.
- Ellemers, N., Kortekaas, P., & Ouwerkerk, J. W. (1999). Self-categorization, commitment to the group and group self-esteem and related but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371-389.
- Ellemers, N., Spears, R., & Doosje, B. (1997). Sticking together or falling apart: In-group identification as a psychological determinant of group commitment versus individual mo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3), 617-626.
- Hinkle, S. W., Taylor, L. A., Fox-Cardamone, D. L., & Cook, S. (1989). Intragroup identification and intergroup differentiation: L. A. multicomponent approach.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305-317.
- Hogg, M. A., & Abrams, D. (1990).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James, L. R., & Brett, J. M. (1984). Mediators, moderators, and tests for mediation. *Journal of*

- Applied Psychology*, 69(2), 307-321.
- Kaplan, A. G., & Sedney, M. A. (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s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02-318.
- Mummendey, A., Kessler, T., Klink, A., & Mielke, R. (1999a). Strategies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Predictions by social identity theory and relative depriv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 229-245.
- Swim, J. K., Aikin, K. J., Hall, W. S., & Hunter, B. A. (1995). Sexism and racism: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2), 199-214.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7-24). Chicago: Nelson-Hall.
- Taylor, D. M., Wright, S. C., & Porter, L.(1994). Dimension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The 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 In M. P. Zanna, & J. M. Olson(Eds.), *The Psychology of Prejudice: The Ontario Symposium*(Vol. 7, pp. 233-255). Hillsdale, NJ: Erlbaum.

Effect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Gender Social Identity on Gender Equality

Kim, Keum-mi

Han, Young-seo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gender social identity and personal discrimination perception on gender equality, based on social identity theory. Specifically, it was hypothesized that 1) the effect of group commitment on gender equality is moderated by perceived discrimination, 2) the effect of group categorization on gender equality is mediated by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the purpose, a sample of 395 female and 368 male completed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effect of group commitment on gender equality of female is moderated by perceived discrimination; along with the decrease of group commitment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gender equality decreased. 2) the effect of group categorization on gender equality of female was partially mediated by perceived discrimination. The significan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opics to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y were mentioned.

Key Words : social identity theory, gender social identity, perceived discrimination, gender equality